

##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          |      |
|----------|------|
| 의안<br>번호 | 6742 |
|----------|------|

발의연월일 : 2007. 5. 31.

발 의 자 : 배기선 · 강기갑 · 강기정  
강길부 · 강봉균 · 강성종  
강창일 · 강혜숙 · 고진화  
권선택 · 권영길 · 김교홍  
김근태 · 김낙성 · 김낙순  
김덕규 · 김동철 · 김명자  
김부겸 · 김선미 · 김성곤  
김송자 · 김영주 · 김영춘  
김우남 · 김원기 · 김원웅  
김재윤 · 김재홍 · 김종률  
김진표 · 김춘진 · 김태년  
김태홍 · 김한길 · 김혁규  
김현미 · 김형주 · 김홍업  
김효석 · 김희선 · 노영민  
노웅래 · 노현송 · 노회찬  
단병호 · 류근찬 · 문병호  
문석호 · 문학진 · 문희상  
민병두 · 박기춘 · 박명광  
박병석 · 박상돈 · 박영선  
박찬석 · 배일도 · 백원우  
변재일 · 서갑원 · 서재관  
서혜석 · 선병렬 · 손봉숙  
송영길 · 신 명 · 신국환  
신기남 · 신중식 · 신학용

심상정 · 심재덕 · 안민석  
양승조 · 양형일 · 염동연  
오영식 · 우상호 · 우원식  
우윤근 · 우제창 · 우제항  
원혜영 · 원희룡 · 유기홍  
유선호 · 유승희 · 유시민  
유인태 · 유재건 · 유필우  
윤원호 · 윤호중 · 이강래  
이경숙 · 이계안 · 이광재  
이광철 · 이근식 · 이기우  
이낙연 · 이목희 · 이미경  
이상경 · 이상민 · 이상열  
이석현 · 이시종 · 이영순  
이영호 · 이용희 · 이원영  
이은영 · 이인영 · 이종걸  
이해찬 · 이화영 · 임종석  
임종인 · 장경수 · 장복심  
장영달 · 장향숙 · 전병헌  
정동채 · 정봉주 · 정성호  
정세균 · 정의용 · 정장선  
정청래 · 제종길 · 조경태  
조배숙 · 조성래 · 조성태  
조일현 · 조정식 · 주승용  
지병문 · 채수찬 · 채일병  
천영세 · 천정배 · 최 성  
최규성 · 최규식 · 최순영  
최인기 · 최재성 · 최재천  
최철국 · 한광원 · 한명숙  
한병도 · 현애자 · 홍미영  
홍재형 · 홍창선 의원

##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2000년 6월 15일이 분단 극복을 위한 오랜 노력의 결실로 마침내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반목과 대립의 분단사를 극복하고 남북한간 화해와 평화 통일을 달성하는 역사적 전기를 마련한 날로서, 이 세대와 다가올 세대가 그 숭고한 정신과 의의를 기념하고 계승할 가치가 있다는 인식하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국회는 정부가 6월 15일을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
2. 국회는 정부가 매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
3. 국회는 정부가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을 지정하고 매년 기념 행사를 개최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

## 제안이유

남과 북은 1972년, 분단 이후 최초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을 담은 역사적인 '7.4 공동성명'에 합의하였고, 1991년 12월 13일 화해 및 불가침, 교류협력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남북기본합

의서'를 채택하는 등 민족 분단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와 같은 오랜 노력과 정성이 밑거름이 되어 2000년 6월 남북은 마침내 정상 회담을 통하여 해방 이후 반세기만에 분단의 시대를 종식하고 화해와 협력의 '6.15 시대'를 활짝 열었다. 이로써 7천만 민족이 간절히 열망하던 한반도 평화와 번영 나아가 통일에 대한 감격적인 이정표가 세워졌다.

빛나는 민족의 통일의지로 일구어 낸 '6.15 남북공동선언'은 통일의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소중한 합의 아래, 남북 간의 화해·협력 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에까지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남과 북은 평화와 번영의 공동 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이산가족의 상봉,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경의선 복원 사업을 비롯하여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통하여,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한반도를 비옥한 번영의 땅으로 일구는 민족 대단결의 새 역사를 개척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100년간의 우리 민족과 후세의 운명이 결정되는 이 중차대한 시점에, 국외적으로는 유력한 국가들의 거대한 힘과 이해관계가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우리가 가진 분단적 사고와 냉전적 대결 의식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100년 전의 비극적 민족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상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우리 민족 스스로의 손으로 민족의 생명을 수호하고 조국의 번영된 미래를 개척하여 한반도를 7천만 겨레의 평화와 번영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6.15'에 담긴 역사적 정신을 되새기고 그 바탕 위에서 통일의 기틀을 차곡차곡 마련해가는 실천적 단계로 가일층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 민족의 일치된 뜻이다.

특히 '6월 15일'은 최근 한반도 외교안보 상황의 일대 격변기를 맞아 우리 민족끼리의 자주적 정신을 되새기고 민족 자결의 숭고한 힘을 모아 통일의 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남과 북의 온 겨레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념하기에 마땅한 의미 깊은 날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정부에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민족 평화통일의 역사적인 날인 6월 15일을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로 지정하고, 매년 남북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통일을 위한 소중한 발자취들을 되돌아보고 6.15 공동선언의 정신과 의의를 기념하여 민족적 긍지와 무궁한 지혜로 통일의 시대를 열어가는 뜻 깊은 행사를 안정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고자 한다.